

EAI 창립 10주년 기념 우리 시대의 현인 강연회 시리즈

김지하 시인 초청 2012년의 도움말 몇 마디

김지하 시인 소개



본명 김영일(金英一), 호는 노겸(勞謙). 현재 원광대학교 석좌교수로 있는 그는 시인이자 생명운동가이다. 1966년에 서울대학교 미학 학사를 받은 후 1970년대 민족문학의 상징이자 유신 독재에 대한 저항운동의 중심으로서 도피와 유랑, 투옥과 고문 등 형극의 길을 걸어온 작가이다. 주요 저서로는 《황토》, 《타는 목마름으로》, 《별밭을 우러르며》, 《이 가문 날의 비구름》, 《밥》, 《남녘땅 뱃노래》, 《살림》, 《옹치격》, 《동학이야기》, 《생명》, 《대설 남》, 《예감》, 《춤추는 도깨비》가 있다.

1941년 전남 목포(木浦) 출생

1966년 서울대 미학과 졸업 후, 8년여 투옥 생활

1969년 「황토길」 등 저항시 5편을 『시인 詩人』 지에 발표

1970년 5월, 당시 『오적(五賊)』 필화 사건; 권력 상층부의 부정 비판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 선고, 7월 무기징역 감형

1975년 2월 출옥후 옥중기 「고행—1974」 발표, 재차 투옥

1975년 <로터스 Lotus> 특별상 수상, 노벨문학상 후보

1981년 <위대한 시인상>과 <브루노 크라이스키 인권상> 수상

1999년 율려학회 창립; 율려사상과 신인간운동 주창

강연 자료

김지하 시인의 '2012년의 도움말 몇 마디'

한민족은 이스라엘에 이은 '성배(聖杯)의 민족'이다. '루돌프 · 슈타이너'는 인류 문명사의 대전환기에 반드시 그 다음 시기의 삶을 살아갈 지혜(성배)를 예시하는 한 작은 민족이 출현한다고 했다. 올해 2012년은 대종말, 이른바 '후천개벽(後天開闢)'이 시작되는 해다.

다음 일곱 가지 도움말을 제시하는 바이다.

① 나와 너의 파격적인 '모심'의 예절을 확립하고 인격-비인격, 생명-무생명 등 일체 존재에 대한 거룩한 우주 공동주체로서의 모심의 문화, 모심의 생활양식으로 인류 현존 생존구조를 전면 변혁하라.

'모심'은 동학, 불교, 예수와 공자, 그리고 무하마드 교의 메카로선 '아크발라이 · 쇼크니아바'(각주1)에도 다 같이 일치한다. 현대 생태학의 '발 · 플럼우드'의 거듭된 대공항 극복의 길이다.

유럽 페미니즘의 '뤼스 · 이리가라이'의 '싸크라리온'(각주2) 제안과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의 '1%대 99%' 주장의 참 근거이고, 2008년 촛불의 기본 이념이다.

② 너와 나 사이의 '우리'를 재평가하자. '공동체'는 실질이 없다. '개체 · 융합(각주3)의 길'에서 그 '융합'의 '새길'을 찾아야 한다. 어린애들의 '마이크로 · 네이션'(각주4)은 새 시대의 암시다. 그 암시 밑에 석가모니의 '천상천하 유아독존(예수의 '독생자'도 함께)'을 재해석하자.

현대적인 '자유의 진화론'에서 '개체'는 실질이고 '융합'은 개체의 숨은 차원이다. 숨은 차원인 융합도 분권적 융합으로써 개체의 '독존'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창조적 스킴의 융합으로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융합'이란 본디부터 개체와 개체 사이, 그것도 매우 제한된 '간벌재(間伐재(辯 가운 데 함 대신 才) · 생물, 물질 사이의 상호 간섭 작용의 영역 · intermedium, 각주5)'의 작용인 것이다. 그것을 인류는 약 4000년 전경부터 비료나 토지제도 활용을 통해 과도하게 '확산'시켜왔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또한 이것을 사회제도와 국가경영에서 윤리, 철학, 과학으로 확산해 온 것이다. (예컨대 중국의 황제시대(黃帝時代)와 주공(周公), 그리고 공자(孔子)와 한대(漢代). 또한 동서양이 똑같이 이른바 문명(文明)이란 이름으로 그것을 발전(發展), 개혁(開革), 정의(正義)로써 들어올렸다.) 오늘 그 후과를 전 세계가 함께 못 견뎌 하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올해(2012년) 하반기 이후 약 3~4년간 알 수 없는 질병과 죽음, 파탄과 변형이 온다면 그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특히 어린애들의 대규모 죽음은 누구도 막지 못한다. 지금 이 단계를 '대종말' 또는 '후천개벽'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그 까닭이다.

③ 세계는 급변한다. 그러나 '원시반본(原始返本)'한다. 과거 5만 년에서 1만 년까지를 우리는 잘 모른다. 결코 단순한 '야만'이 아닐 것이다. '원시반본'이 또한 '후천개벽'이요, '천부경(天符經)'이요,

'대화엄(大華嚴)'이며 '모심'의 윤리적 근원이다. (남녀 윤리의 근원 역시 거기에 있을 것이다.)

왜 현대세계의 급변이 '원시반본'인가? '원시반본(原始返本)'은 이제부터 원시(元始)로 되돌아감이다. 무엇이 원시(元始)로 되돌아간다는 말인가? 다섯 가지 원리(原理)다.

첫째, '궁궁태극(弓弓太極)'(각주6)이라는 우주생명학의 근원인 지기(志氣)의 출현으로서의 개혁. 둘째, '여성(女)과 약기(弱氣)의 생명 및 생활가치의 중심성((妙衍, 각주7). 셋째, '월인천강(月入千江 · 하나의 달이 천개의 강물에 다 따로따로 비침)'과 '일미진중합시방(一微塵中舍十方 · 작은 한 톨의 먼지 속에도 우주가 살아 있음)'과 세계일화(世界一花 · 온 세계는 결국 커다란 한 송이의 꽃, 각주8)라는 화엄 진리. 넷째, 일체 사랑은 '모심'(각주9)으로서만 제구실을 한다. 다섯째, 남녀관계의 근원은 아기의 출산과 성장에 의해 그 본질이 결정된다(각주10).

5만 년 전은 세계조판(世界肇判)으로서의 선천개벽(先天開闢)이다. 인류의 과학과 지혜, 그리고 상상력은 이제 그 시절(元始)로 나아가야 할 때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만5000년 전에서 1만 년 전까지의 파미르 고원 중심의 '마고성(麻姑城)'의 시대, 그리고 그 시대에 시작된 '신시(神市)'와 그것의 원리인 '팔여사율(八呂四律)'이겠다. '칼 · 폴라니'의 '대전환'에 의하면 '신시'는 '호혜(互惠), 교환(交換), 획기적 재분배(劃期的 再分配)'의 구성 양식이고 '팔여사율'은 '여성성, 혼돈성, 우연성, 개체성, 세목성, 풍요성을 여(呂)로, 남성성, 질서성, 필연성, 전체성, 포괄성, 절제성을 율(律)로 하는' 여성 우위의 '기우똥한 균형 원리'다(각주11).

④ 나와 우리만 아니라 '그들' 역시 한울이요, 부처다. 공동체가 아니라 도리어 철저한 모심의 대상이다. 모심의 대상으로 바꿀 때 진정한 '화엄개혁의 복승(複勝)과 확충(擴充)'의(각주12) 새 세계가 열린다.

세계는 지금 도처에서 큰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변이거나 진화로서만 인식되고 있는 것은 큰 새 표준의 등장을 모른 채 낡은 세계 종교나 과학으로만 적당히 얼버무리기 때문이다.

이제 '그 얼렁뚱땅'이 한꺼번에 변하게 된다. 그것을 나는 '복승(複勝)'이라고 부른다. 동양 경락학(經絡學) 용어다. 경락학에서 표층경락(表層經絡)의 음(陰)과 양(陽)이 무력(無力)해질 때 그 무스 제3의 종합(綜合) 따위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표층 밑에 숨겨진 심층경락(深層經絡), 즉 기혈(氣穴)로부터 숨은 차원인 '미립명(微粒明)'이라는 불가사의한 기능이 올라와 병을 치유하는데 이를 화엄경은 '생명의 씨와 생명의 지혜(수생장(受生藏) · 수생자재등(受生自在燈))'라, 천부경은 '아낙과 아기의 생명 및 생활 중심가치(묘연(妙衍))'라, 동학은 지기(至氣)-혼돈한 근원의 한 기운(混元之一氣)'이라, 유학(儒學) 표현으로는 '태극궁궁(太極弓弓)'이라, 그리고 예수는 '제 목숨을 바치는 섬김'이라 표현한다.

이때에 세계가 세계 자신을 인식하는 중생 해방의 대해탈, 즉 복승과 확충이라는 새 세계가 시작된다. 그 초점은 '모심'이다.

⑤ 병(病)은 확대되고 죽음과 파괴는 일반화된다. 그러나 3년 안에 새로운 질서가 나타난다. 그것은 '여성과 아기들'로부터, 그리고 '못난 사람들'로부터, '중생(衆生)'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시작은 이른바 '제3세계'(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와 섬들, 고원들, 외딴 마을들, 외로운 사람과 짐승들)에서 비롯된다. 그들에 관한 정보와 지식체계를 빨리 세우라. 문화, 역사, 지리 등등.

우선 약리(藥理)를 밑에 깔 새 시대의 세계역학(世界易學)이 나타나야 한다. 이른바 '묘연화엄개벽역(妙衍華嚴開闢易)'이 그것이다. 동아시아 중심주의적 전통 역학으로는 소용없다. 한국과 동아시아를 포함하되 예컨대 베트남과 캄차카를 도리어 건(乾)·곤(坤)으로 하여 시작하는 제3세계와 유럽, 아메리카 등을 다 포괄하는, 그리하여 카알·프리브람의 '17개 우주선(ASTRAL RAY)'(각주13)이 기존 동서양과 인류의 생명학과 물질체계 전체에 관통하는 '우주생명역(宇宙生命易)의 대화엄전개(大華嚴展開)의 철저한 모심'이 실천되어야 한다.

그 실천 주체는 변함없이 '여성과 아기들'이어야 한다.

⑥ 이제껏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던 미신(迷信), 소문(所聞), 전설(傳說)과 환상(幻想) 등을 재빨리, 천천히 연구하라. '월가를 점령하라'의 세계적 시위는 모두 다르나. 그런 미신, 소문, 전설과 환상으로 가득 차 있다. 바로 그것들과 '17개 우주선(ASTRAL RAY)'을 연속시키며 그것이 들어와 있다. 그것을 체계화, 정보화, 과학화하는 데 문화혁명에 착수해야 한다.

이탈리아, 로마와 베네치아 등에서 '기억하기 싫은-없어지라'는 뜻의 ① Memento Mori
독일, '죽은 나무귀신'-이미 남아빠진 자본주의 유비 ② Totem Gayat
만들어진 말 '지랄 같은 달라' ③Enai Tolaa
'썩은 물귀신'-이슬람의 전통적 낡은 귀신이름 '꺼져라'의 뜻 ④ lim Nevita
프랑스, 옛 엉터리 귀신 이름. 최대의 멸시와 경멸적 호칭 ⑤ Anva Dora
남미, 칠레, 아르헨 등의 '돌 깎은 산 귀신'-'산으로 꺼져라'의 뜻 ⑥ Petoeia Magu
일본 경우 극소수지만 '근본적으로 사라져!'라는 귀신 쫓을 때의 여성 용어 ⑦ 改退(개퇴)

'월가를 점령하라'의 미국과 세계적 운동 명칭들. 7개 전체가 전통적 좌파 표현의 용례들과는 아득히 멀다. 어디서 기원한 상상력들일까? 이것들은 그들 자신의 SNS들과 아직 미확인 단계까지 포함해서 그 주체와 방향성, 사상 경향 등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전체적으로 좌파식의 사회과학적 모순어휘 등과는 거리가 멀다. 물론 그중에 좌파도 있으나 그들의 논의 과정 자체가 SNS나 카페 등 논의 자유의 장이다. 따라서 총동적이고 저심총적, (이것은 문명사적으로 의미심장하다.) 미신적 느낌이 강하다. 단순한 SNS 유행을 넘어 '붉은 악마', '촛불' 그리고 화염적 접근과 선(禪)에 연결되는 후천개벽 인상이 짙다. 이것은 무슨 현상인가?

이것은 역(逆)으로 '모심'의 세계문화대혁명의 총동적 밑바탕이 아닐 것인가?

⑦ 우리나라가 그 첫 시작이다. 우선 동학 창시자 수운 최제우(水雲 崔濟愚) 선생의 시 '남쪽 별이 원만을 얻으면 북쪽 강물이 방향을 바꾼다(남진원만 북하회(南辰圓滿北河回))'와 동학 주문 '궁궁

(弓弓)부터 밝히라. 이것은 문화혁명과 화엄개벽의 세계 전략이고 '아시안·네오·르네상스'의 시작인 '한류(韓流)-K·팝'의 비밀, '시김새-흰 그늘'의 미학 원리인 것이다.

지금 '남조선(南朝鮮·South Korea)'은 14세기 말 이탈리아의 피렌체 못지않은 '막말'과 '꼼수'와 월가 스타일의 '피라니아(Piranha)'로 만원이다. 진정한 개벽의 별이 떠야 하고 참다운 원만의 대화엄이 지펴져야 하며 그리하여 북조선과 '세계의 북쪽'에 오래도록 뒤틀린 문병사의 경도(輕度)가 방향을 바꿔야 한다. 그것이 곧 '남진원만 북하회(南辰圓滿 北河回)'라는 계시의 지침이다. 그리고 그 역동(力動)의 시작은 반도 남단으로부터 먼저 '묘연화엄개벽역(妙衍華嚴開闢易)'이라는 우주생명역학이 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조선과 민족통일과 한·미 동맹(정역(正易)의 간태합덕(良兌合德))으로부터 '동서양문명대융합'이라는 '대화엄원만(大華嚴圓滿)'이라는, 이른바 '궁궁(弓弓)'이 현실화함으로써 천부경의 '여성 및 아기들의 생명·생활 중심 가치' 위주의 '모심'으로 마침내 우주대전환이 이루어진다.

그 첫 발동이 '한류-K·팝'이며 그 미학적인 '시김새-흰 그늘'에 의해 촉발되는 '아시안·네오·르네상스'다.

피렌체 최대의 당시 욕설은 '개 똥구멍에 낀 살구씨 같은 놈아'였다. 그러나 오늘 남조선의 'Global-National한 욕설'인 '졸라·빨라(Zolla Bballa)보다는 한 수 아래다.

주(註)

1. 아크발라이·쇼크니아바

'저 어둠 위에 참 빛을!'의 뜻. 무하마드 성인의 메카시대 첫 부인의 별명으로 '여성(어둠) 존중(참 빛)'을 뜻한다. 이슬람에서는 50년 전부터 여성과 아기들 사이의 비밀지하운동으로 싹터 이후, '세벨리온(별·일종의 신시운동)'과 '재스민 혁명(정치변혁)'으로 발전한다.

2. 싸크라리온(Saclarion)

현존 유럽 페미니스트 학자인 '뤼스·이리가라이'의 최근 제안으로 예수의 겿세마네 동산에서의 식사 예정에서 나온 말이다. 단순한 '성찬(聖餐·싸크라멘타리움)'과는 구별되는 (피와 살의 신비와는 다른) 공양(供養)과 양육(養育)의 모심의 생활가치를 강조한다.

3. 개체·융합(個體·融合)

현대 자유의 진화론은 '찰스·다윈'류의 '전체(공동체) 발생 선행론'을 넘어서는 '개체발생 선행론'과 그 내면의 '숨은 차원'으로 '분권적 융합'을 강조한다. 'identity-fusion'의 번역이다.

4. 마이크로·네이션(Micro-Nation)

'최소국가(最小國家)'다. 최근 유럽과 미국 일부에서 약 1200여 케이스 정도로 추산되는 어린 애들의 한 가족 중심의 소규모 '방콕(방에 콕 틀어박히는 외톨이)의 네트워크'다. 헌법은 없고 틀은 국가 조직으로써 6살, 7살, 8살 등 10명 이내의 어린애들이 17살 정도의 큰 형을 대통령으로 세우고 엄마를 고문으로 하여 (아빠는 배제된다) 이른바, '개체성을 전제한 분권적 융합'을 즐긴다. 이미 '월드컵'의 붉은 악마 때 '방콕의 네트워크' 또는 '밀실(密室)의 연대(連帶)' 등으로, 촛불 때는 전혀 비조직적인 '집단 지성'으로 현실화되었다.

5. '붉은 악마'를 찾아서

4500년 전의 중국 황제(黃帝)의 농업 확산 개발정치와 한국 배달국의 연방제 민족 치우(蚩尤) 지휘 하에 유목·농업·상업 등 다경제간별구조 사이의 76회에 걸친 탁록(涿鹿)대전은 바로 그 전환점이다. 서양의 경우는 알 수 없으나 동양의 경우 불치병의 근원은 바로 그 '간벌재(intermedium)'의 지나친 확산 남발에서 온다. 이것을 막는 것은 중국 명나라 말기 서남쪽에 대유행 하던 화염 의술인 '시공종(時工宗)'의 '붉은 생명씨(적수생장(赤受生藏))' 즉, 또 하나의 '붉은 악마'였다. 이것은 오늘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6. 궁궁태극(弓弓太極)-지기(至氣)-혼원지일기(混元之一氣)

동학의 부적으로써 지극한 우주 생명의 근원인 혼돈적 질서.

7. 묘연(妙衍)

한국 최고 고전 천부경(天符經) 81자 중의 절정으로써 '오묘한 넓힘'의 뜻. '묘(妙)'는 역사적으로 '현빈(玄牝)'과 '현람(玄覽)'의 미묘함을, '연(衍)'은 그 미묘함에 관한 생명과 생활 중심의 심오·확대 해석.

8. 월인천강(月印千江), 일미진중합시방(一微塵中含十方), 세계일화(世界一花)

셋 다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의 오묘하고 복잡한 우주 생명의 진리를 대표적으로 압축하고 있음.

9. 예수의 '섬김(또는 모심)' 그리고 동학의 '모심(侍)'

일체 사랑의 최고 단계를 '모심'이라 압축하고, 이것은 불교, 유교, 이슬람이 다 일치한다. 현대인의 최고 도덕률이라고 강조한 것은 '루돌프·슈타이너'와 '발·플럼우드'다.

10. 부부와 아기

아기는 부부 관계의 부산물이 아니다. 도리어 아기가 부부 관계의 실질적 창조자요, 가치 핵심이다. 유럽의 '젠더 투쟁'의 유행이 '이리가라이'의 '싸크라리온(아기의 가치를 중요시함)'으로 전환하는 것을 보라!

11. 여성 우위의 '기우뚱한 균형 원리'

월가의 '슈퍼·버블' 직후 우리나라의 '오일장(五日場·신시의 잔영)', 프랑스 등의 '신의 우물'이란 이름의 '작고 따뜻한 시장'이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곧 여성성 우위의 '기우뚱한 균형 원리'가 경제에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12. 복승(複勝)과 확충(擴充)

'개벽'은 복승(複勝 · 경락학에서의 기혈로부터 숨은 차원인 '미립명?(微粒명)'이 솟아나 치료해 주는 것'이고 '화엄'은 그 새 세계의 확대와 충족(확충(擴充))이다. 이때 '모심'은 '묘연(妙衍)' 중심의 '축적순환의 장기지속' 즉, 'F·브로델(Braudel)' 용어로 'Conjoncture'다. 이것이 이제부터의 우주생명역학(宇宙生命易學)의 핵심이다.

13. 카알·프리브람(Carl·Prebrum)의 '17개 우주선(ASTRAL RAY)'

뇌 생리학의 카알·프리브람은 미국인으로서 이미 고인이다. 그는 우주의 '블랙홀'이나 '초신성' 등 새 사태가 인간의 대뇌 활동 속에 복사(複寫)됨을 주장했다. '17개 우주선(ASTRAL RAY)'은 최근 외계 우주의 17가지 빛이 지구 불질과 생명 속에 관여하고 있음을 그가 비밀리에 '주제이관'한 것이다. 이것은 인류 우주생명학의 이제부터의 숙제다, 최근 지구와 인류의 여러 불가사의한 변화와 행동들은 이것들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선, 그 대답은 '아시안·네오·르네상스'와 '모심'의 '묘염화엄개벽역'의 세계문화대혁명 과정에서 나올 것이다. 이제까지 인류는 미신, 소문, 전설, 환상, 그리고 괴변은 피해왔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정면으로 보아야 하겠다. 특히 여성 심리, 아기들의 기이한 행동과 '꿈수', '거짓말', '상상력' 그리고 트위터·페이스북의 SNS 현상의 추함과 지리멸렬까지도 검토하는 나름의 판단체계가 세워져야 한다. 그 안에 '무엇인가'가 숨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막말' 속에 '대문명'이 있는 법이다. 이것이 크게 보아 화엄경의 '무승당해탈(無勝幢解脫)'의 '묘언타라니?(妙言陀羅尼)'로써 '선(禪)적 과학'의 시작이자 '자행동녀(慈行童女)'의 '비로사나장전(毘盧遮那藏殿)'의 씨앗이다.